

참된 회개는 죄 사함으로 연결되며, 사람의 마음을 중심에서부터 바꾼다.

회개와 믿음

박옥수 목사 저

기쁜소식사

머리말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다. 그 후 그는 뉘우치고 회개했다. 은 삼십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노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가롯 유다의 회개는 자신을 구원으로 인도하지는 못했다.

나도 참 오랫동안 가롯 유다처럼 내가 범한 죄에 대해서 뉘우치며 회개했다. 매일 “주님, 거짓말했습니다. 도둑질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하고, 이런 뉘우침과 고백과 회개를 반복했다. 그러나 나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어느 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 자신의 악한 중심을 보게 되었다. 나는 내 마음 속 중심에서 추하고 더러우며 음란하고 가증한 나를 발견했다. 내 마음 중심에 악이 있는 것 때문에 신앙이 안 됨을 깨달았다. ‘나는 근본이 악한 인간이구나, 나는 선을 행할 수 없구나, 나는 더럽구나’ 하고 내가 범죄한 결과보다도 근본이 더러움을 깨닫게 되었다. 그때부터 나는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불신하고 내 생각을 버리게 되었다. 그때 예수님이 놀랍게도 내 마음에 임하시면서 내 삶이 정결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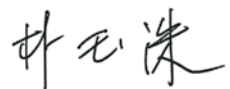
며 속사람이 변하게 되었다.

참된 회개는 사람의 마음을 바꾼다. 그 뒤 나는 이 말씀을 증거했고, 말씀을 듣고 자기를 부인한 사람들이 변화된 새 삶을 사는 모습들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보았다.

체조경기장 집회를 통해서 전해진 이 말씀이 책으로 출판됨을 감사드리며, 이 글을 읽는 독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모두 자기 죄에서 벗어나 거듭나는 은혜를 입게 되길 바란다.

2006년 2월 7일

기쁜소식강남교회 목사 박옥수



회개와 믿음

초판 발행 2006년 2월 11일

10쇄 발행 2010년 6월 5일

저 자 박옥수

발행인 김용환

발행처 (주)기쁜소식사

주 소 158-843 서울 양천구 신월2동 606-45

연락처 050-2244-9191, FAX 050-2244-9192

등 록 제2006-44호

ISBN 978-89-85422-76-5 03230

www.goodnewsbook.co.kr

회개와 믿음

머리말

- | | |
|------------------|-----|
| 1. 베드로의 회개 | 8 |
| 2. 가롯 유다의 회개 | 40 |
| 3. 사도 바울의 회개 | 72 |
| 4. 가인의 회개 | 106 |
| 5. 다윗의 회개 | 146 |
| 6. 술 맑은 관원장의 믿음 | 178 |
| 7.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 210 |
| 8. 아브라함의 믿음 | 248 |
| 9. 요셉의 눈물 | 282 |





1

베드로의 회개

“신앙은 실패에서 시작됩니다.
신앙에 실패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하려고 합니다.
내가 잘하고 열심히 하면 믿음은 형식이니,
거기에서는 절대로 진정한 믿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고 주님을 세 번
부인하면서 자기 자신이 다 무너져내렸습니다.”

베드로의 회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체조경기장에서 ‘IYF(국제청소년연합) 세계대회’ 개막식을 두 번 하고,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집회를 가졌는데, 이런 좋은 장소에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이 체조경기장에서 굉장히 많은 행사가 있었겠지만, 이처럼 복음의 말씀을 나누는 일을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뜰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아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

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아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답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7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회개, 변화되는 정확한 과정

이번에 ‘회개와 믿음’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대학생들을 훈련시켜서 전 세계로 1년씩 단기 선교를 보내는데, 대부분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던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 학생들이 굉장히 놀랍게 변해 그 모습을 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2006년에 나갈 학생들을 모아서 훈련하고 있는데, 훈련받는 학생들이 얼마 전에 가진 워크샵에 와서 선배들이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나흘 워크샵을 가지면, 다음에 또 얼마나 훈련받습니까?”

“3주.”

“그 기간에 우리가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요?”

학생들이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27일부터 30일

까지 김천에 있는 저희 수양관에서 훈련을 받는 동안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저희들이 나흘간 대학생들을 훈련하면서, 아마 이곳에 그 대학생들이 많이 와 있을 줄 압니다만, 그 학생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고 교사들이나 관계자들 모두가 놀랐습니다. 지난 주에 울산 KBS홀에서 집회를 가졌는데, 중간에 IYF 학생들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자기가 살아온 삶과 10월 워크샵에 참석해서 구원받은 과정을 ‘리얼 스토리’라는 제목으로 보여 주었는데, 그것을 보고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생애가 그렇게 바뀔 수 있는지…!

여러분, 우리 중에는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닌 분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 좀 잘해보고 싶지요. 믿음으로 살고 싶고, 기도 응답도 받아보고 싶고, 성령의 충만함도 입어보고 싶고….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됩니다.

저는 성경에서 사람이 변하는 과정을 살살이 찾아보았습니다. 베드로가 변하고, 사도 바울이 변하고, 사마리아 여자가 변하고…. 그 사람들이 변하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과정이 있습니다. 그 변화되는 과정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회개’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은 이 회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를 못하고, 그냥 죄를 고백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신앙을 배우니까 회개하고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를 아무리 해도, 백번 천번 만번을 해도 그 마음이 죄에서 떠나질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봄에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로마서 3장 말씀을 전했고,

그 전에는 성막과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전했고, 이번에는 참된 회개에 대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참된 회개, 성경이 말하는 참된 회개를 거치면 마치 부서진 연장 조각이 용광로에 들어가 녹아서 새 물건이 되어 나오듯이 여러분 마음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참된 변화를 가져오는 그 과정을 가리켜 성경은 ‘회개’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회개에 대해서 차근차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회개했고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가룟 유다는 어떻게 회개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는가? 사도 바울은 어떤 회개를 함으로 참된 믿음을 얻었는가? 가인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회개했는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신앙과 맞춰서 분별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제가 전하는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시면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피아노는 힘을 빼고 쳐야

제 아내와 결혼하고 얼마 안 되어서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저는 세상에서 그렇게 예쁜 딸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어릴 때 제가 데리고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한번은 딸아이가 네다섯 살 때쯤 함께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데, 제 옆자리에 흑인이 앉았습니다. 저는 모르고 탔는데, 제 딸아이가 그 흑인 얼굴을 한참 쳐다보더니 ‘으앙!’ 하고 소리를 지르며 울어버렸습니다. 제가 너무 무안해서 그 흑인 신사 분에게 죄송하다고 이야기하고, 애가 다른 세상을 아직 못 봐서 그렇다며 미안하다고 하니까 웃으

면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분들이 얼른 자리를 바꿔 주고, 제 딸에게 초콜릿을 주고 해서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저는 총각 때 만일 내가 결혼해서 딸을 낳으면 피아노를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내가 좀 피곤할 때 딸에게 피아노를 치라고 해서 피아노 연주를 듣고 싶다’ 그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딸을 낳고 아이들을 낳아 그 아이들이 자랄 때에는 저희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요즘 말대로 세종대왕하고 친하지 않으면 살기가 어려운데, 그때는 세종대왕은커녕 울곡 이이나 퇴계 이황 얼굴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저희들이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딸에게 피아노 가르칠 생각할 틈도 없었고, 또 가르칠 만한 여유도 없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과외라는 것이 뭔지 모르고 자랐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모님이 자기가 처녀 때 쓰던 아주 작은 중고 피아노를 주었는데, 제게 그런 바람이 있어서 그랬는지 딸아이가 그것을 자꾸 쳤습니다. 바이엘도 치고, 찬송가도 치고. 조금 늦게 피아노를 배웠지만 교회 예배 시간에 반주도 하고 그랬습니다. 딸아이가 장성하고 난 뒤에는 피아노를 배워야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유명한 교수를 만나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한번은 제가 딸이 피아노 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야, 교수가 좋다’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피아노 소리가 달라져 있는 겁니다.

몇 년 후 제 딸하고 러시아를 여행했는데,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옛날에는 레닌그라드라고 불린 세계적인 음악 도시에서 세계적으로 피아노를 잘 치는 이자벨라라는 교수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구원받고 너무 기뻐하여 제 딸이 그분에게 피아노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다. 딸이 여러 날 러시아에서 피아노를 배우고 한국에 오는 날, 제가 딸이 보고 싶어서 아내하고 인천공항에 마중을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딸을 만나 반가워서 딸을 제 차 뒤에 태우고 운전하고 가는데, 러시아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느라고 딸의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 중에서 피아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피아노란 거는요, 내가 피아노를 다루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피아노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전에는 내가 피아노를 잘 치려고 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면 피아노 연주가 안 돼요. 마음을 비워야 돼요. 나에게 피아노를 가르친 교수님은 늘 ‘피아노 치는 것은 화분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 화분에 물을 부르면 다 스며들듯이 내가 피아노 안에 스며들어야 된다’고 해요. 아버지, 이건 신앙하고 똑같아요.”

“피아노 치는 게 그러냐?”

“예, 아버지. 똑같은 피아노를 가지고 똑같은 건반을 쳐도 힘을 빼면 피아노 소리가 깨끗해지고 맑아지고 가벼워져요. 힘을 빼야 그런 소리를 내는 터치가 돼요.”

“야, 피아노 건반을 때려야 소리가 나지, 힘을 빼면 무슨 소리가 나냐?”

“아버지, 그렇지 않아요. 힘을 빼야 돼요.”

제가 피아노에 대해서 뭘 압니까? 도레미파 정도 알지요. 그런데 여러분, 피아노를 처음 치는 사람은 힘껏 치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막 치지만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가면 피아노를 치는 데에도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피아노를 배운 사람하고 음악의 나라에서 피

아노를 배운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면, 그런 세계를 못 배운다는 것입니다.

IYF 교사들 가운데 진영우라는 교사가 있는데, 이 교사는 식물학을 연구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한번은 제 설교 중에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어느 날 ‘택솔’에 관한 논문을 읽었습니다. 암을 이기는 항암제가 주목나무에서 나오는 택솔이라는 성분인데, 100년생 주목나무 네 그루를 베어야 택솔 1그램을 얻고, 그 1그램을 가지고 항암제 서른 다섯 대에서 오십 대를 만든답니다. 그런데 주목나무 공급에는 한계가 있어서 세계의 수많은 박사들이 택솔을 배양하는 방법을 연구했지만 못 해내서, 그 일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한 것을 이 교사가 논문에서 읽었습니다. 그 글을 읽고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생각해 그날부터 자기 연구소 소장하고 택솔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이 암을 정복하는 연구를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은 발명 특허를 내고 영국 에딘버러 대학교와 함께 만드는 과정을 연구 중인데, 요즘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 암 걸리지 말고, 꼭 걸리려면 2년만 있다가 걸려라’고. 앞으로 2년이면 택솔이 충분히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면, 전 세계의 식물학 박사들이 식물을 연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꾸로 해서 연구해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자기는 교회에서 들은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연구하니 너무 잘 풀린다고 합니다.

피아노를 칠 때 힘있게 두드려야 하는 게 아니라 힘을 빼고 내가 피아노에 젖어들어야 합니다. 이 세상 원리가 다 그렇습니다. 수영을 할 때도 그렇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힘을 들여 물장구를 치며 수영을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잘 안 나가고 힘을 빼야 앞으로 짹짹 나간다고 합니다. 제 며느리가 수영 선수였는데, 그래서 제 아들과 결혼할 때 며느리 어깨가 너무 넓어서 제 아내는 늘 며느리 어깨만 쳐다보았다고 합니다. 제 아들이나 며느리는 수영할 때 저에게 “아버지, 힘을 빼세요.” 합니다.

“야, 힘을 빼면 가라앉잖아.”

“그렇지 않아요. 힘을 빼세요.”

그게 진짜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원리가 다 그렇습니다. 야구선수가 타석에서 힘을 들여가지고 있으면 해설자가 “아, 힘이 너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안 되지요.” 하고, 복싱도 힘껏 때려야 상대가 넘어질 것 같은데 “아, 어깨에 힘이 들어갔어요. 오픈 블로밖에 안 되지요.” 하고 이야기합니다. 힘을 빼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도 그렇습니다. 처음 신앙 세계에 들어설 때는 그냥 십계명 지키고 주일 지키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바쁘게 바쁘게 뭘 합니다. 그 단계로 계속해서 가다가 신앙에 변화가 한 번 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늙어 죽을 때까지 열심히 하려고 애만 쓰지만, 신앙생활을 좀 깊이 생각해 가며 하면 ‘아, 내가 힘을 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신앙이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온 마음을 쏟는다고 신앙이 되는 게 아니구나!’

하고 감이 옵니다. 대충 신앙생활을 하면 한평생 그런 생각을 못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아, 신앙은 내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충성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시점에 도달하는데, 그때부터 신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는 베드로에 관한 글을 읽었습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 빈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타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라고 하신 뒤, 배 위에서 무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다 전하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선생이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어도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베드로가 그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분은 고기를 한 번도 잡아본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저분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지?’ 베드로가 깜짝 놀라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 베드로가 배도 그물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배는 버렸지만, 그물은 버렸지만, 잡은 고기는 버렸지

만,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은 버리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면서도 여전히 자기 생각을 따랐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능력 있는 종들의 삶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어떤 계기가 그들 삶에 일어났는데, 베드로에게는 그런 계기 없이 죽 지나오다가 오늘 저녁에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이 잡히실 때가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날 저녁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길,

“주여, 무슨 말씀입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선생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안드레가 부인하고 야고보가 부인하고 요한이 부인하면 했지, 저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너무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하시면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를 부인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해야 하는데, “나는 죽어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은 자기를 믿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신앙이 되겠습니까? 자기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도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했을 때 베드로는 “나는 부인 안 합니다. 내가 안 한다고 하는데 왜 부인한다고 합니까?” 하고 자기 의견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되잖아, 율법 지키면 되잖아, 충성하면 되잖아, 그런 마음으로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해보면 어느 날 한계에 도달해서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가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주일 지키면 되지, 충성하면 되지, 기도하면 되지, 죄 안 지으면 되지, 착하게 살면 되지’ 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려고 하는 신앙의 세계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한평생 기도 신앙의 다음 단계가 오지 않습니다.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 부지런히 피아노를 치다가 어느 단계에 가면 힘있게 친다고 소리가 좋아지고 맑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모를 때에는 정신없이 피아노를 칩니다. 그런데 진짜 잘 치는 사람이 치는 것을 보면서, 똑같은 피아노인데 자기가 치는 것과 전혀 다른 피아노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피아노가 어떻게 저런 맑은 소리를 내지? 어떻게 저런 소리가 나오지? 나는 왜 안 되지?’ 잘 치는 사람은 힘을 전혀 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치는데도 멋진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힘만 줘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수영도 힘을 들여서 물을 저어나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사람은 힘들이지 않는데도 쓱쓱 나갑니다.

‘저 선수는 저렇게 힘을 들이지 않고 쉽게 하는데도 짹 짹 나가네!’ 그 것을 보기 전까지는 자기가 하는 것이 최고로 잘하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보면서 다음 단계로 들어갑니다.

돈을 버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돈을 벌려고 하면 안 된답니다. 내가 돈을 벌려고 하면 돈이 피하고, 돈이 찾아와야 한답니다. 내가 벌려고 하지 않는데 돈이 찾아온답니다. 그래야 벌리지, 내가 돈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IYF 회지에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유명한 산악인 엄홍길 씨의 인터뷰 글을 읽었습니다. 제가 그분 글을 읽고 ‘이 사람이 예수 믿으면 신앙생활 기차게 잘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하고 예수님만 빠졌지, 신앙의 높은 경지에 이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와 아주 가까운 후배 한 사람이 에베레스트 산에서 로프를 잡고 있다가 얼어죽었습니다. 그 시신을 수습하려고, 너무 위험하지만 이분이 생명을 걸고 에베레스트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후배의 시신을 한국까지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산에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산을 오르는 것은 내가 산을 올라가야 하는 것이 아니고 산이 허락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산을 오를 때 산이 자기 마음을 다 알고 있어서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산이 허락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분이 정말 사랑하는 후배의 시신을 한국으로 가져오려고 했는데, ‘산이 여기까지 허락하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여기에 안장하자’ 하고 산에 안장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우리가 하는 단계가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 신앙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가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하고 노력하면 신앙이 될 줄로 압니다. 제가 기독교 텔레비전에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봅니다. 그 목사님들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우리가 충성합시다.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깁시다.” 하는데,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왜? 자기가 그렇게 안 해본 겁니다. 정말 그렇게 해본 사람은 그것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한번은 어떤 사람이 자기가 1년에 신구약 성경을 175번 읽었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아, 저 사람은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밥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종일 성경을 읽으면, 신구약 성경을 다 읽는 데 딱 1주일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성경을 읽으면 1년에 성경을 50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1년에 175번 읽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한 번도 제대로 안 읽어본 사람인 것입니다. 읽어본 사람은 한 번 읽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압니다. 제가 천천히 읽는 것도 아니고 눈으로 쪽쪽 읽어 내려가면 성경 한 면을 읽는 데 보통 2분이 걸립니다. 성경이 약 1750페이지쯤 되니까, 다 읽으려면 꼬박 60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1년에 175번을 읽었다니, 그 사람은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충성하니까 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한 번도 그렇게 해보지 않은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노력하고 열심히 충성해서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짜 신앙을 갖고, 형식적인 신앙을 갖고, 위선적인 껍데기 신앙을 갖습니다. 뭐, 여러 날 금식기도를 했더니 비몽사몽간에 환상이

보이고…. 물론 환상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면, 여러분이 신앙에 실패해야 합니다. 신앙에 실패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하려고 하고, 그러면 신앙은 되지 않습니다. 실패해야 자기가 포기되고, 자기가 포기된 뒤에 주를 믿는 믿음이 오지, 내가 잘났고 잘하고 열심히 하면 믿음은 형식이지 절대로 거기에서 진정한 믿음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탕자가 꾸었던 꿈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께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 말 속에 무슨 뜻이 들어 있습니까? 아버지가 재산을 줄 때 자신이 없으면 “아버지, 저는 나이가 어린데 이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란 말씀입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탕자 마음에 자신이 있으니까, “아버지, 내가 늘 어린애인 줄 압니까? 재산 한번 줘봐요. 나는 잘할 수 있어요.” 하는 마음이 강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재산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몇 날이 못 되어 아들이 그 재산을 다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재산이 다 떨어져서 궁핍해졌는데,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 먹을 게 없었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엄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

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탕자가 거기에서도 버틸 때까지 버티는 겁니다. 언제까지? 자기 마음이 무너져내릴 때까지.

신앙이라는 것은 ‘나’라는 나무가 악하고 더럽고 죄에 빠졌으니 ‘나’라는 나무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부인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말씀노트 제일 앞에 무슨 글을 쓸까 생각하다가 “죄에서 벗어나”라는 글을 썼습니다. 이걸 그냥 제 간증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철도 모르고 교회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커가면서 죄를 지었고, 교회에서 죄를 지으면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것을 계속했습니다. 죄 짓고 회개하고, 회개하고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죄 짓고. 그 상태로 계속 살았습니다.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것은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제가 대전 한밭중앙교회에 있을 때, 우리 교회 담 밑에 갈보리교회라고 조그마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가 다섯 시 반인데, 그 교회는 다섯 시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섯 시만 되면 그 교회 사람들이 우는 겁니다. 겨울에는 문을 닫아놓고 예배를 드리니까 괜찮은데, 여름에는 더우니까 창문을 열어 우는 소리가 다 들립니다. 한번은 새벽에 어떤 아저씨가 후레시를 들고 그 교회에 가서, 사람들이 막 울고 있는데 “잠 좀 자자! 잠 좀 자자! 잠 좀 자자!” 하고 소

리쳤습니다. 그 사람들 왜 읊니까?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지, “항상 울어라. 쉬지 말고 쥐어짜라. 눈물로 세월을 보내라.” 그랬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신앙이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대신 해주실 줄 믿고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신앙이 힘들고 고달프다는 이야기는 내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많이 합니다. 저는 비행기 조종을 전혀 못 하는데, 그래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은 유능한 조종사가 비행기를 몰고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신앙을 여러분이 하려고 할 때 문제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맡아서, 여러분의 죄를 맡아서, 여러분의 신앙을 맡아서 하셔도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자기가 한번 사업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자기가 사업을 하면 잘할 것 같고, 아버지가 하는 것은 시들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재산만 주면 내가 사업을 잘할 건데, 아버지는 왜 저런지 몰라. 이해가 안 가.’ 그런데 아버지가 재산을 주었으니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 돈 가지고 사업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요즘 같으면 벤츠 몰고 ‘뽕뽕’ 하면서 오고 싶은 거지요.

“아버지, 둘째 왔습니다! 잘 계셨습니까?”

“아버지, 우리 집에 가보시지요!”

멋진 차를 타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여기서부터 사방 80리가 제 땅입니다. 아버지, 우리 집 대문에서

안방까지가 4킬로미터입니다. 차 타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이쪽으로는 요트장이 있고, 이쪽으로는 경비행장이 있고, 여기 승용차가 있고요. 아버지, 우리 집에 있는 나무는 전부 남미에서 수입한 열대산 나무고요, 금붕어는 한 마리에 5백 만원짜리입니다. 우리 집에 있는 골동품, 저건 옛날에 진시황이 쓰던 것, 저건 유럽에서 황제들이 쓰던 것입니다. 얼마나 비싼지 압니까? 아버지, 저도 돈 좀 벌었지요!”

이 아들이 이렇게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둘째 아들처럼 내가 기도 잘하고, 내가 충성하고, 내가 열심히 성경 읽어서, 그렇게 내가 한 것들을 꼭 내보이면서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십일 금식기도를 하고 충성해서 예배당을 개척했습니다. 하나님, 어떻습니까? 대단하지요! 천국 보내주세요.”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다 그런 식의 신앙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노력의 대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죄를 씻을 수 없고 인간의 수고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충성하고 노력해도 거들떠보시지도 않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는 예수님이 지어서 하신 이야기인데,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실제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잘된 아들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웃에도 아무 재산 없이 서울에 올라와서 부자 된 사람이 많잖아요.

제가 한번은 정주영 씨 자서전을 읽었습니다. 꽤 오래 되어서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정주영 씨가 이북에서 태어나서 도망갔다가 잡혀들어가고, 다시 도망와서 쌀집에서 쌀 배달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성공해서 현대를 만들었습니다. 울산시 이름을 현대시라고 하더라도요. 외국이나 우리 나라에서 자동차가 아주 잘 팔려서 다른 도시는 다 불황이어도 울산은 불황이 아니랍니다.

정주영 씨는 그렇게 성공했는데, 왜 성경은 성공한 사람 이야기는 다 놔두고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창기하고 지내다가 돼지우리에서 돼지하고 지내는 이야기만 씁니까? 왜 성경은 이렇게 긍정적으로 안 씁니까?

성경은 그냥 이야기로 쓴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세계를 그린 것입니다. 오늘 저녁 체조경기장에 와 계신 여러분 가운데 세상에서 돈 좀 벌고 잘살고 성공한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맨주먹으로 서울에 올라와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돈을 벌고 훌륭한 사업을 일구고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성공한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신앙의 세계에서는 노력하고 수고해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 탕자가 거지가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신앙생활을 하면 탕자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

어느 날 탕자가 생각을 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아버지에게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회개입니다! 지금까지 둘째 아들은 자기가 사업해서 돈을 벌어 아버지에게 보이고 싶었는데, 그것이 안 되어 돼지우리에 내려갔습니다. 돼지우리에 내려갔다고 해서 아직 자기가 포기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이래도 좀더 열심히 일하면 주인이 나를 알아봐 주겠지. 그러면 밥을 주겠지. 그 밥을 먹고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밀천을 모아 장사해서...’ 둘째 아들이 항상 그랬습니다.

옛날에 어떤 포수가 사냥을 갔는데, 여우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야, 저걸 잡아야지!’ 하고는 ‘저걸 잡아서 뭐할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우를 팔아서 암탉을 사야지. 암탉을 사면 알을 많이 낳겠지. 그러면 그걸 팔아서 암돼지를 사야지. 암돼지가 자라서 새끼를 많이 낳으면 그걸 팔아서 암송아지를 사야지. 또 송아지가 자라서 새끼를 많이 낳겠지. 그러면 그걸 팔아서 땅을 사야지. 기와집을 지어야지. 장가를 가야지. 그리고 나서 ‘탕’ 하고 쏘려고 보니까 여우가 달아나고 없었습니다. 금방까지 잠자고 있던 여우가, 소를 많이 길러서 목장을 만들고 기와집을 짓고 예쁜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하고, 됐다 하고 보니까 잠이 깨서 어디로 도망가고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아리도 날아가고, 암탉도 날아가고, 돼지도 날아가고, 송아지도 날아가고, 집도 날아가고, 마누라도 날아가고, 다 날아가버렸습니다. 여우가 그만 다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둘째 아들이 돼지우리에 살지만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좀더 열심히 하면 주인이 나를 알아보고 밥을 주겠지. 그럼 내가 좀더 열심히 해서 돈을 벌고, 나중에는 사업을 하고...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착각 속에서 재미를 느끼면서 인생을 산다

고 합니다. 도박하는 사람들이 왜 도박을 하느냐면 따려고 합니다. 다 따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도박할 때 잃으려고 하겠습니까. 다 딸 것만 생각하지 잃을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꼭 딸 것 같고, 이번에는 꼭 딸 것 같고... 나중에 도박하다 밀천이 떨어지면 마누라 잡혀놓고 도박한다고 합니다. 뭐, 마누라 잡혀놓고 도박하면 어떻습니까? 딸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판다고 생각하니까 뭐든 잡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 문서 갖다 잡히고, 집문서 갖다 잡히고, 아들 대학 등록금 갖다 잡히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탕자처럼 그렇게 되어도 이번에는 돈을 좀 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디까지 갔느냐면,

“돼지가 먹는 쥐엄열매를 먹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자기가 가는 길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의 결과는 이렇다. 이제 내가 하지 말고 아버지에게 내 인생을 맡겨야겠다. 아버지가 해주시게 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이 바뀌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언제 이 아들이 좋은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살진 송아지를 먹는 풍성한 시대가 왔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이 실패인 것을 알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가 부인되었을 때, 그래서 아버지에게 자기 자신을 다 맡길 때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반드시 그 시점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 보면 ‘아, 이 사람은 그 시점을 못 넘긴 사람이다’ ‘이 사람은 그 시점을 넘긴 사람이다’ 하고 표가 납니다.

시카고의 신발 세일즈맨 김부치

미국 시카고에 김부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늘 ‘금부치, 금부치’ 하고 불렀습니다. 이 사람이 시카고의 신발 가게에서 신발을 팔았습니다. 큰 매장의 점원이었는데, 신발을 기가 막히게 잘 팔았습니다. 손님이 와서 이 사람을 한번 만나면 하다못해 슬리퍼라도 신겨 보내지, 그냥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신기합니다. ‘무슨 말을 해서 그렇게 될까? 내가 목사로서 내게 온 사랑을 하나도 그냥 안 보내고 다 변화시켜서 보낸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분도 죄가 있어서 우리 기쁜소식선교회 시카고 교회에 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돈 벌면 뭐하냐? 밥밖에 더 먹냐? 이 복음 너무 좋은데 나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우리 선교학 교에 입학 원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신발 가게 사장님을 찾아

왔습니다.

“사장님, 제가 한 달 동안만 일하고 한 달 후에 그만두려고 합니다.”

사장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매장을 김부치라는 사람이 다 이끄는 데.

“미스터 김, 왜 그래? 대접이 부족해서 그래? 뭐 섭섭한 게 있어? 이야기해 봐.”

“그게 아니라 저는 한국에 있는 선교학교에 가고 싶습니다.”

“뭐, 그냥 살지 선교학교를 간다고 해?”

“아니, 저 꼭 갈 겁니다.”

“그럼, 딱 1년만 더 있다가 가. 미스터 김이 선교학교 가는 것은 좋지만 우리 가게는 어떻게 하라고. 미스터 김 없으면 장사를 누가 해? 좀 있다가 가.”

“저, 가기로 했습니다.”

사장님이 너무 섭섭했습니다. 그래서 떠나기 전날 함께 식사를 하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미스터 김, 한국에 가거든 공부 잘하고 훌륭한 선교사가 되세요. 그런데 혹시 어렵거든 언제든지 우리 가게에 와요. 우리 같이 일합니다.”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오는데, 직장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복음 전도자가 되려고 왔는데, “언제든지 어렵거든 우리 가게로 와요.” 그 말은 못 버린 겁니다. 선교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고 신앙 훈련을 받는데, 다른 사람은 온 마음을 쏟아 훈련을 받지만 그 사람은 ‘나는 사장이 언제든지 오라고 그랬어. 하다 안 되면 신발 팔면 되지

뭘. 나는 신발을 잘 팔아’ 하는 마음으로 지내니까 훈련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 몸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병균 하나가 들어와서 사람이 죽듯이, 아무것도 아닌 생각 하나 들어 있으니 6개월이 지난 다음 다른 학생들하고 천지차이가 났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믿었습니다. ‘나는 신발은 잘 팔아. 어떤 손님이 와도 비위 상하지 않게 마음 맞춰서 잘해.’ 6개월이 지난 뒤 자기가 봐도 다른 학생들하고 차이가 너무 나니까 이 사람이 도망을 갔습니다. ‘까짓 것 안 되면 할 수 있나? 선교사가 되면 좋지만 안 되면 할 수 없지. 시카고로 가자.’ 시카고 공항에 내려서 사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사장님, 저 왔습니다.”

“아, 미스터 김 왔어요? 잘 왔어요. 어서 와요!”

그날부터 신발 가게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전에는 신발을 그렇게 잘 팔았는데 안 팔리는 겁니다. 손님들과 시비가 붙고. 그래도 사장님은 ‘6개월 동안 안 해서 그렇겠지. 저 사람 신발 파는 실력을 아는데, 다시 잘하겠지’ 하고 참았습니다. 1주일 동안 다른 코너에 서는 다 파는데 이 사람은 못 파는 겁니다. 오는 손님들마다 자꾸 짜증이나 화를 내고 돌아가고. ‘저 사람이 안 그러더니...’ 그래도 워낙 잘했던 사람이라서 믿었습니다. 2주 3주가 지나도 안 되니까, 어느 날 저녁 일을 마치고 사장님이 커피 한 잔 하고 가라고 불렀습니다. 둘이 앉아서 커피를 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스터 김, 내가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요?”

“선교학교에서 왜 왔습니까?”

“뭐...”

“다시 가세요. 아무래도 하나님이 이것 막는 것 같습니다. 내가 미스터 김을 참 좋아했는데, 미스터 김 두었다가 하나님이 우리 회사 다 망하게 하겠습니까. 돌아가세요.”

그 자신감! ‘나는 신발을 잘 팔아! 내게 오는 손님에게는 어떻게 해서라도 꼭 신발을 팔고 말아! 사장님이 인정해 줘! 시카고에서 나만큼 세일 잘하는 사람은 없어! 나는 신발을 잘 팔아!’ 자기를 믿는 그 마음에 흠조차 한 번 난 적이 없는데, 깨어지길 시작했습니다.

남자들은 전부 ‘나 때문에 이 가정이 잘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늘 하는 말이 “당신 말 들으면 이 집구석 되지도 않아. 내가 하나까 이 정도 살지!” 합니다.

거지 부자(父子)가 길을 가다가 어떤 집에 불이 나서 사람들이 다 불탄다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울고 있는 것을 보고 아들 거지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는 불날 걱정은 없지요?”

“다 네 애비 덕인 줄 알아라.”

사람들은 자기를 믿습니다.

김부치라는 사람 마음에서 자기는 신발을 잘 판다는 생각이 무너졌습니다. ‘나도 이럴 때가 있나? 나는 잘 파는데, 나는 잘하는데, 나도 이럴 때가 있나?’ 이제는 한국 선교학교에 가고 싶어도 나올 때 한 것이 있어서 가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선교회의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 집회하러 갔는데, 어느 날 김부치 형제가 그 목사님에게 자기 간증을

죽 하면서 “내가 교만했습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뉘우쳤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박 목사님, 김부치 형제가 이렇게 마음을 꺾고 뉘우쳤습니다.”

“한국에 오라고 그래요.”

한국에 왔습니다. 6개월 전에 가지고 있던 ‘나는 신발을 잘 팔아. 선교학교에서 안 되면 신발가게에 가면 돼.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 하는 마음이 다 무너졌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다 무너져버렸습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무의하구나. 나를 믿은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르겠구나!’ 그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선교학교에서 6개월 훈련받은 것보다 신발가게에 다시 가서 한 달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진짜 자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신발을 잘 판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게 되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인간인 것을 알고 자기를 믿는 마음이 다 무너져버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변했습니다. 선교학교에서 훈련을 받는데, 다른 사람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믿음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키모들이 많이 사는 알래스카 앵커리지에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앵커리지는 겨울이 되면 오전 11시에 해가 뜨고 오후 2시에 해가 집니다. 밤에 자다 보면 꿈이 와서 부엌에서 뭘 뒤지기도 한답니다.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순록이 나타나고, 꿈을 자주 만난답니다. 그 곳에서 전도해서 앵커리지 사람들이 많이 구원받았습니다. 아주 험한 앵커리지에 있다가 몇 년 전에는 하와이로 갔는데, 하와이에서도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되는지 모릅니다.

비로소 무너진 베드로

신앙은 그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그 과정을 겪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를 신뢰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되지, 율법 지키면 되지, 술 끊으면 되지, 연보하면 되지... 그것은 자기가 하는 것이니 주님이 도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신앙은 언제부터 되느냐면, 기도해도 안 될 때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도 안 될 때, 술을 끊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될 때, 그때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탕자가 나가서 열심히 잘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되었을 때 변화되었습니다.

내가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한 것을 고백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나는 죄의 씨입니다. 땅콩을 심으면 땅콩이 나고, 보리를 심으면 보리가 나고, 벼를 심으면 벼가 나고, 목화를 심으면 목화가 나듯이, 나는 죄의 씨이기 때문에 나를 심었을 때 죄밖에는 열매 맺히는 것이 없습니다. 죄의 나무인 내가 어떻게 선을 맺겠습니까? 땅콩 나무에 어떻게 사과가 달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리에 어떻게 콩이 달릴 수 있으며 벼에 어떻게 팥이 달릴 수 있습니까? 나는 죄의 씨입니다. 내 마음 중심이 악하고 더럽습니다. 내게 추하고 악한 생각이 올라옵니다. 나는 욕망에 젖어 있고, 미움이 일어나고, 시시때때로 음란한 마음이 올라오고, 거짓을 행하는 악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더러운 것이 솟구쳐 오르는 더러운 죄의 씨앗입니다!”

그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그 중심을 모르면 ‘열심히 기도하면 되지 뭐. 착하게 살면 되지 뭐. 죄 안 지으면 되지 뭐. 율법 지키면 되지 뭐’ 합니다. 자기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다 자기 양심을 속이는 짓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날 사도 바울과 같은 소리가 나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내게는 왜 선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내 속에서는 왜 악한 마음이 일어나는가! 나는 왜 미운 마음을 만들어내는가! 왜 이렇게 음란한 마음이 내 속을 더럽힐까!’

다윗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여,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라고 말했듯이, 내가 근본 죄악투성이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덩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한번은 제가 미국 워싱턴에 있는 어떤 장로님하고 신앙상담을 했습니다. 그 장로님이 저에게 자신이 장로로서 착한 일 하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한 이야기를 한참 했습니다. 제가 장로님에게 물었습니다.

“장로님, 미국에서는 혹시 엉덩퀴에 무화과가 달립니까?”

“안 달리지요.”

“한국에서도 그렇습니다. 혹시 미국에서는 가시나무에 포도가 달립니까?”

“아니오. 안 달립니다.”

“그렇지요. 한국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은 죄의 나무에서 어

떻게 선한 것을 맺습니까? 기술도 좋습니다.”

입을 딱 벌리고 다물지를 못했습니다.

“장로님하고 나하고 다른 점이, 나는 죄의 씨라서 내게서는 악이 솟아나고 나는 더럽고 추해서 선을 행하지 못합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고 노력해 보면 좀 되는 것 같다가 안 됩니다. 나는 죄의 씨라서 안 되는데, 장로님은 어떻게 죄의 씨면서 그렇게 선한 열매를 맺습니까?”

말을 못 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를 신뢰한 것입니다. 그러면 죄의 열매밖에 못 맺습니다. 우리가 죄의 나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하는 일은 죄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잘 몰랐습니다. ‘내가 주님 부인 안 하면 되지. 내가 생명 버리고 주님 따라가면 되지.’ 그날 밤, 오늘 저녁에 읽은 말씀대로 예수님이 잡혀갈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는 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한 말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고,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따라가니까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집종이 이르되 “네가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 하니 부인하는 것입니다. “네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겠다.” 하고.

그 전까지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몰랐습니다. 자기가 부인하지 않으려고 하면 안 할 수 있고,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하면 안 할 수 있고, 결심하면 안 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소리쳤는데, 그날 세 번이나 주를 부인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자기를 믿는 마음이 다 무너져버렸

습니다.

‘내가 어리석게 이런 나를 믿었구나! 이런 나를 의지했구나! 내가 이런 생각을 따라 살았구나!’

자기가 너무 어리석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는 자기 생각을 다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니까, 그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을 인도하고 이끄는 놀라운 삶이 되었습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낙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간음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돌감나무라면 가지 하나 자르지 말고 원동치를 잘라 버리고 참감나무를 접붙여야 하듯이, 거짓말하고 도둑질한 것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나는 죄의 씨앗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서는 악한 생각이 쉬지 않고 끓어오릅니다. 내 속에서는 더럽고 음란한 마음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내가 겉으로는 간음하지 않을 수 있을지 몰라도 마음으로는 수없이 간음하고 수없이 살인하고 수없이 거짓을 행합니다. 이런 내가 어떻게 선하게 될 수 있습니까? 나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주님이 내 인생을 맡아 주십시오. 이제 주님이 나를 주관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다 버리고 내 인생과 영혼을 주님께 맡길 때, 그때부터 주님이 여러분 속에 살아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죄를 씻는 것은 어렵지만 주님께 맡겨 주님이 죄를 씻는 것은 너무 쉽고, 여러분이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마약을 끊는 것은 어렵지만 주님이 하시면 너무 쉽고, 여러분이 선을 행하는 것은 어렵지만 주님이 하시면 너무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회개는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는 안 되니까 내 인생 전체를 예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이러한 회개가 이루어지면 여러분 속에 사랑하는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간음했다, 도둑질했다, 거짓말했다, 살인했다는 지엽적인 일을 뉘우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내가 근본 죄의 씨이기 때문에 내가 해서는 구원이 되지 않고 내가 잘해서는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는 것, 그것이 참된 회개이고 참된 신앙입니다.

그 사실이 여러분 속에 이뤄지고 여러분이 참된 회개를 하면, 여러분 속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밝고 복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길과 생각을 다 버렸지만,
가롯 유다는 자기 자신은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팔아먹은 죄 그것만 버리려고 했습니다.
가롯 유다는 또 자신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속에서 '너 예수님 팔았지? 자살해, 자살해!'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자살해버렸습니다.”

